

'대학 성장의 밑거름' 1억원 기탁

전북대 축산 브랜드 '두지포크', 생산·판매 수익 일부 내놓아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학교)이 농·생명공학 연구 성과로 탄생한 예코 축산 농장인 '두지포크'(대표 장성용)가 대학에 1억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해 기른 돼지를 생산·가공 판매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내놓은 것이다.

이날 오후 23일 오후 이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장과 장성용 두지포크 대표 등을 대학에 초청해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감사패 전달 등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지포크는 양돈 산업에 유용 미생물을 적용하는 이른바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적용해 고품질 프리미엄 돈육을 생산하고 있다. 유용 미생물이 돼지 장 속에서 공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질병과 축사의 악취, 분뇨 처리, 생산성 저하 등 축산 분야의 4대 난제까지 해결하고 있다.

전북대 연구진은 농촌진흥청의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지원을 받아 유용 미생물을 이용해 가축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면역력이 높은 친환경 명품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생산된 이른바 3원(무항생제, 무호르몬제, 무소독제) 고급 돈육은 현재 최고급 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회원제로 판매되고 있으며, 전북대 교수진과 지역이 협력하여 만든 '글로벌푸드컬처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수제 돼지고기 요리 전문점 '온리헨즈'에서도 판매 중이다. '온리헨즈' 운영진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이 농·생명공학 연구 성과로 탄생한 예코 축산 농장인 '두지포크'가 대학에 1억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은 지역 외식브랜드 육성을 통한 학생 취·창업 지원과 지역농축산 브랜드 육성 등 지역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학교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장은 "이번 발전기금은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한 연구 성과가 실제로 산업화 되고, 파생되는 수익이 대학 성

장의 밑거름으로 이어지는 매우 우수한 사례"라며 "전북대가 지역 발전뿐 아니라 농생명 분야의 융·복합 기술을 통해 국내 농축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국 시낭송대회 성료... 전안군씨 전체대상 수상

(사)한우리 한·일 문화예술복지회가 주최한 제7회 전국 시낭송대회가 21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의 취지는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을 통한 시낭송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건설과 올바른 언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

이날 열린 행사에서는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전체대상과 금상을 휩쓸어서 눈길을 끌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전안군씨가 전체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임실군에 거주하는 김종갑씨와 완주군에 거주하는 조금씨, 임실군에 거주하는 김홍수씨가 금상을 차지했다.

/김재훈 기자



김제지평선홍보클럽, 장애인에 삼계탕 무료중식 봉사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강정원)은 지난 20일 김제지평선홍보클럽(회장 이영애)의 후원과 봉사로 김제시 장애인복지타운 내(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제시 장애인 체육관, 김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제시장애인단체) 장애인과 가족 200명에게 삼계탕 무료중식을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제지평선홍보클럽 회원들이 초복을 맞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과 과일 떡 등을 제공, 무더위에 지친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활기를 채워 주었다.

김제지평선홍보클럽 이영애 회장은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 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진장소방서, 하트세이버 5회차로 금배지 수여

이성재 전북소방안전본부장로부터 23일 2018년 상반기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을 실시해 심장지 환자를 소생시킨 공로로 무진장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원이 하트세이버 배지와 인증서를 전수 받았다.



하트세이버를 수여받은 국립회소방관은 "당연한 업무를 했을 뿐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는 커다란 보람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 수지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간담회

남원시 수지면사무소는(면장 하두수)은 지난 20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9명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지면은 상반기 활동에 대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하반기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자살예방교육·유관기관 간담회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23일 회의실에서 1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 교육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교육과 화재 및 재난현장 활동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구급대원과 사회복지무원의 심층전문 상담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남원소방서 현장활동 보건안전관리책임자들과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간담회를 통해 자살예방 사업소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자살 시도자의 응급상황 대응, 소방활동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자살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용담면 체육회 단합행사 '화합의 장'

진안군 용담면 체육회(회장 최상오)는 지난 21일 용담면 체련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체육회원, 기관사회단체장, 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소통을 위한 단합행사를 가졌다.



이번 단합행사는 용담면 체육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다가오는 진안군민 체육대회, 홍삼축제, 3군3면 행사 등 하반기의 크고 작은 행사에 앞서 정보를 교환하며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